

BRIEF

발행인 | 김영진 편집위원 | 류유선·이유라 발행일 | 2023. 5. 31.

인구 줄고, 사회취약계층 늘고 -대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0년을 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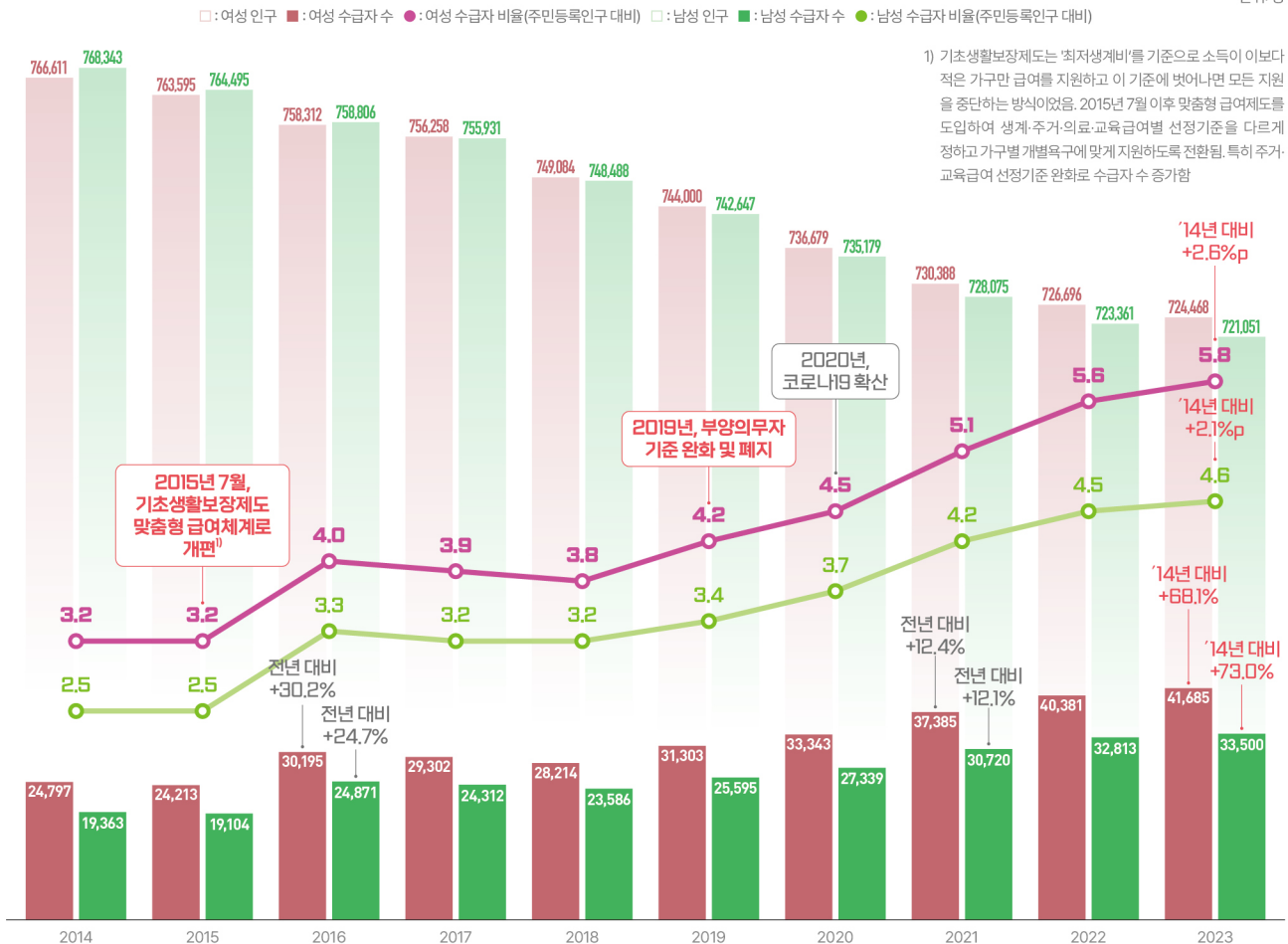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3년 3월 기준 여성 137만 7,648명, 남성 108만 9,647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9만 62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한다. 대전시 또한 10년 전과 비교해 70.3% 증가한 7만 5,185명이다. 대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성별, 연령별 규모와 변화를 살펴보고, 가시화하고자 한다.

대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년 새 약 2배 증가, 여성이 남성보다 8천여 명 더 많아

2023년 3월 기준, 대전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5,185명 중 여성은 41,685명, 남성은 33,500명이다. 2014년부터 남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고, 여성이 계속해서 남성보다 많다. 전년 대비 수급자가 가장 많이 늘었던 해는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체계 개편 후인 2016년이다. 두 번째로 수급자 수가 뛰었던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2021년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여성 수급자 비율은 2014년 3.2%에서 2023년 5.8%(+2.6%p)로 증가했고, 남성 수급자는 2023년 4.6%로 10년 전보다 2.1%p 상승했다. 대전시 남녀 인구는 줄어드는 것에 반해 수급자는 늘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구 대비 상승폭이 약간 크다.

대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비율

단위: 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일반수급자²⁾와 시설수급자³⁾ 모두 포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3) 보장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의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신 자료(2023년 3월)인 3월을 기준으로 각 년도 동월 비교함

· 여성과 남성 전체 인구는 각 년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주민등록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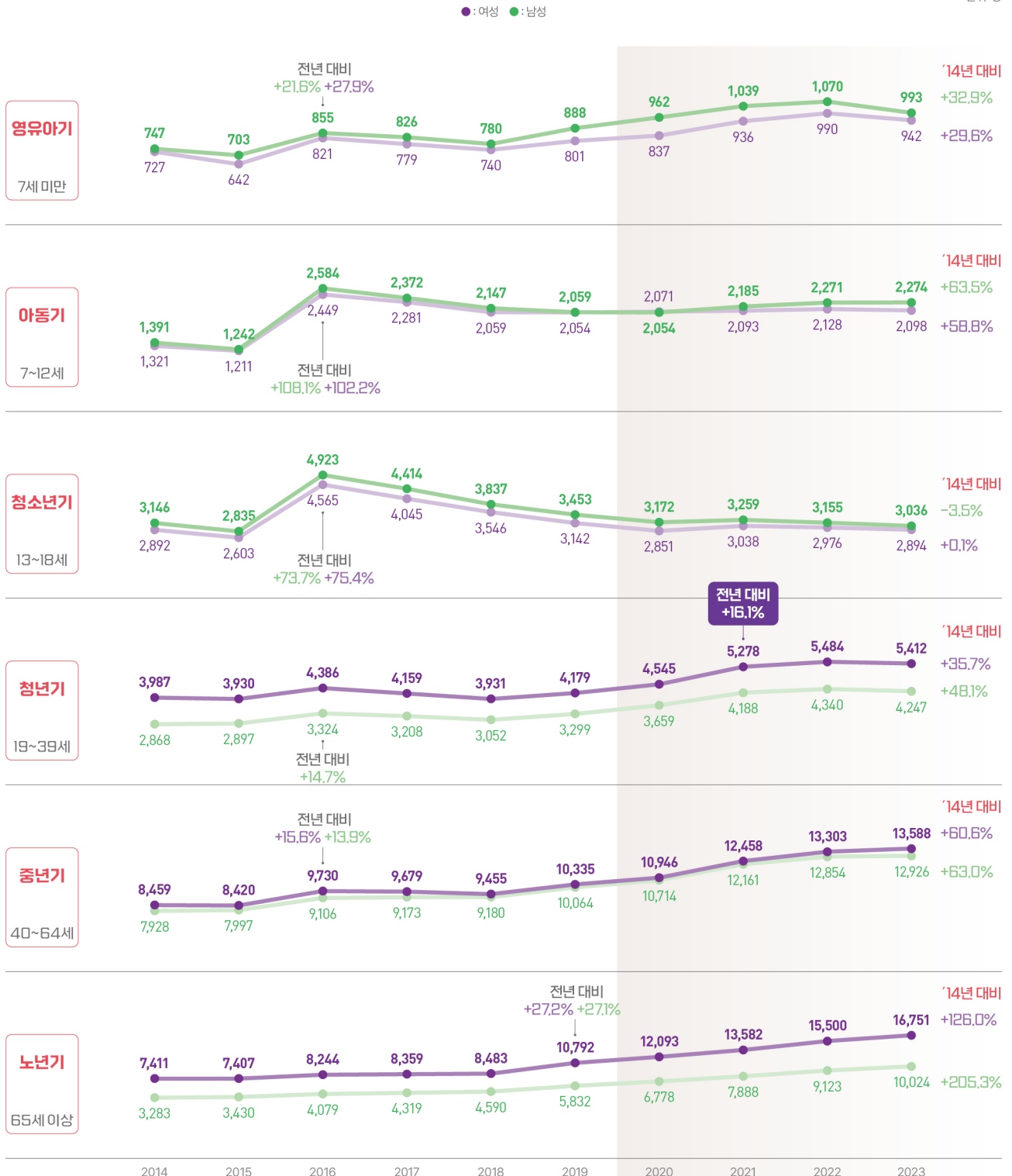
· 출처: 복지통계(bokjiro.go.kr), 「기초생활보장」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청년여성 수급자가 가장 많이 늘었던 시기, 코로나19 확산하던 2021년으로 나타나

생애과정별 대전 수급자 변화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남성 수급자를 제외하고 여성과 남성의 모든 연령대에서 201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수급자는 노년기(65세 이상)가 가장 많고, 남성 수급자는 중년기(40~64세)가 가장 많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까지는 남성 수급자가 여성 수급자보다 많으나, 청년기부터는 여성 수급자 수가 남성 수급자 수를 앞지른다. 청년기 여성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수급자가 가장 많이 늘었던 해는 제도 개편 이후인 2016년과 2019년이다. 반면, 지난 10년 중에서 청년기 여성의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때는 2021년으로 나타났다.

대전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모두 포함

· 연령대별 분류는 보건복지부(2022),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의 생애주기별 수급자 현황의 분류를 참고하여 영유아기(7세 미만), 아동기(7~12세), 청소년기(13~18세), 청년기(19~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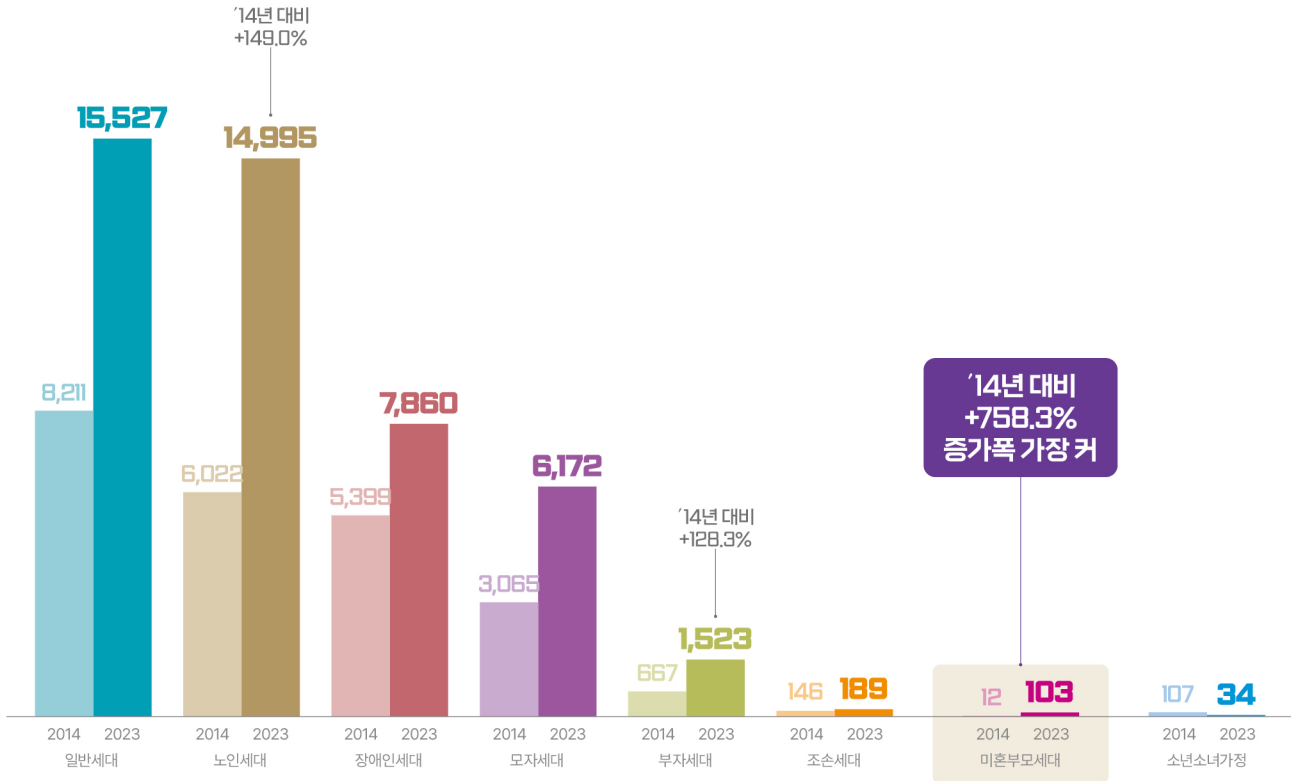
· 출처: 복지통계(bokjiro.go.kr), 『기초생활보장』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10년 전보다 +758.3%, 가장 큰 증가폭 보인 미혼부모 수급가구

2023년 대전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일반세대가 15,527가구로 가장 많다. 그 다음 노인세대(14,995가구), 장애인세대(7,860가구), 모자세대(6,172가구), 부자세대(1,523가구), 조손세대(189가구), 미혼부모세대(103가구), 소년소녀가정(3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해 수급가구 수가 줄어든 소년소녀가정('14년 대비 -68.2%)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유형에서는 늘었다. 특히 미혼부모세대의 경우, 가장 큰 폭('14년 대비 +758.3%)으로 증가했다.

대전 세대구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

단위: 가구



· 세대구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유형에 따라 구분·산출됨
· 미혼부모세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노인세대: 64세를 초과한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부(모)자세대: 부(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일반세대: 부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장애인세대: 장애인이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조손세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 소년소녀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기타: 일반세대, 부자세대, 모자세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가족(본 호에서는 제외함)
· 출처: 복지통계(bokjiro.go.kr)

제1회 성인지 정책 포럼

일류도시 대전, Build Up! '양성평등교육_기관편'



세종여성플라자 홍만희 대표,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본부 임우연 교육사업팀장, 대덕구 황순천 주무관, 대전 시의회 김민숙 의원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종사자, 활동가, 충남과 세종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현황과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자리가 됐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5월 24일, 2023년 첫 번째 성인지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대전세종연구원 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이 현재 진행 중인 『대전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 촉진 방안 연구』 내용을 공유했고, 이어서 대전 여민회 김정임 사무국장,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김미화 소장, 대전시교육청 장소영 장학사,

